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2. 4(목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 과장 정은영 / 사무관 이희갑 (Tel. 044-200-2149)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 과장 원도연 / 사무관 이정빈 (Tel. 02-2100-8459)
엠바고	5일(금) 새벽 3시 이후 사용 / 5일 조간 및 아침뉴스 사용 가능 (런던 현지 회의종료 시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)		
공동배포	외교부		

이석준 국무조정실장, 「제4차 시리아 공여국 회의」에서 1,200만불 규모 인도적 지원 계획 발표

-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시리아 인도적 위기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2.4(목) 런던에서 개최된 「제4차 시리아 공여국 회의(The Supporting Syria and the Region Conference)」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.
-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시리아 인도적 대응을 위해 금년도 1,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시리아 주변국에 대해 약 3,300만불 규모의 유·무상 개발협력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 서약하고,
-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개발협력 구상들과 연계하여 난민에 대한 교육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 - ※ 우리의 대시리아 인도적 지원 규모 : 2012-15년간 총 2,345만불
 - 12년 200만불, 13년 400만불, 14년 745만불, 15년 1,000만불
- 아울러,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시리아의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▲인도적 재원 확대, ▲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간 연계, ▲테러리즘 및 분쟁의 근원에 대한 정치적 해결이 긴요함을 강조하였다.

□ 금번 회의는, 시리아 사태가 6년째 지속됨에 따라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,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주변국들 역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, 시리아 및 주변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위해 영국, 독일, 쿠웨이트, 노르웨이 4개국 정상 및 유엔 사무총장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.

○ 시리아 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1,350만명으로 이들의 절반 이상이 아동이며, 인구의 80%가 빈곤, 65%가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다. 터키, 요르단, 레바논 등 주변국들은 총 430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면서 막대한 경제적,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.

○ 이에 따라, 유엔은 금년도 시리아 및 주변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에 약 77.5억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며,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시리아 난민 수용국의 복원력(resilience) 강화를 위한 개발 지원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었다.

* 유엔의 시리아 관련 인도적 지원 요청 내역

- 시리아 대응계획(Syria Response Plan) : 시리아 지원을 위해 32억불 요청
- 지역난민·복원력 계획(Regional Refugees and Resilience Plan(3RP)) : 시리아 주변국내 시리아 난민 지원 및 주변국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45.5억불 요청

□ 우리 정부는 '인도주의 외교'를 우리나라 외교의 대표 브랜드로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, '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(leave no one behind)'는 지속가능개발목표(SDGs)의 정신을 이행하기 위해, 향후 인도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